

인터넷기술자격 인증시험 활성화 사업

정부는 지난 '97. 3 자격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 자격에 대해 자격심사를 거쳐 국가공인회를 추진키로 해 인터넷기술자격증의 국가공인의 길이 열려, 앞으로 예상되는 인터넷 전문인력 공급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 전문인력 수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재찬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진흥부장

배경

최근 몇 년간 정보통신분야의 급속한 발전을 선도해온 인터넷이 정보사회의 기반구조로 정착하면서 전 산업 분야에 걸친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게 되었다. 세계 인터넷 기술 및 산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이미 차세대 인터넷(NGI)개발에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가오는 21C에도 인터넷 강국의 자리를 고수하겠다는 야심을 현실화 시키고 있다. 국내역시 정부주도로 정보화촉진정책에 힘입어 인터넷 이용자가 매년 10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관련 기술 및 네트워크의 고도화로 인터넷 환경역시 급속하게 진보되고 있어 장기적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자 증가 추세〉 (단위 : 천명)

구 분	'94	'95	'96	'97	'98.7.
이용자	1,38	366	732	1,635	2,190
증가율	-	165%	100%	123%	34%

이같이 인터넷 이용자수의 급증과 이용 환경의 발전은 인터넷 및 관련산업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KT, DACOM, SKT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 및

PC통신등 부가통신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사업자 증가추세〉

(단위 : 천명)

구 분	'94	'95	'96	'97	'98.7.
이용자	6	11	16	21	25
증가율	-	83%	46%	31%	19%

인터넷 이용자 수와 인터넷산업 및 관련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법·제도적인 환경변화와 정부정책 집중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정보통신교육을 강화시키는 “교육비전 2002”라는 교육정책을 마련하였고 정보통신부는 21C 정보통신 강국을 목표로 한 “MIC-UP21”이라는 정책에 인터넷 분야를 포함시켜 세부발전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국민의 정보통신 촉진을 위한 기반 수단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일관된 정부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이는 자연스럽게 인터넷산업 및 관련분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과 및 전망

인터넷산업 및 관련분야의 발전은 이 분야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정보통신분야 산업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단체와 연구소, 기업 등 사실상 모든곳에서 인터넷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기술자격증은 인터넷전문인력에 대한 급증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회는 인터넷 기술자격증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32,357명이 인터넷자격시험에 응시하여 7,438(제4회 정보검색사시험 제외)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격증시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으며 자격시험에 대한 앞으로의 수요 역시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분야 자격증 국가공인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7.3 자격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에 대해 자격심사를 거쳐 국가공인화를 추진키로 해 인터넷기술자격증의 국가공인의 길이 열려, 앞으로 예상되는 인터넷전문인력 공급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 전문인력 수요가 가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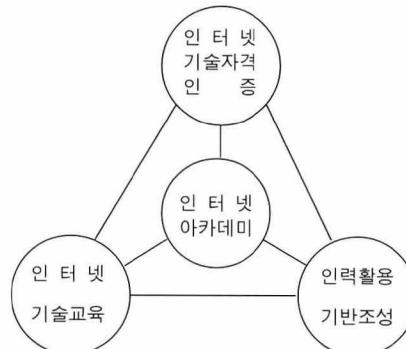
〈전문인력배출현황〉

인터넷정보검색사	구분	응시자		합격자	합격율
		제1회	제2회		
일반	제3회	4,960	-	1,163	23%
	제4회	12,370	-	-	-
	1급	1,695	97	6%	-
	인터넷전문가	제1회	97	13	14%
인터넷전문가		제2회	-	-	-

사업 방향

인터넷전문인력 보급사업은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다가오는 21C Cyber시대를 대비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둘째, 인터넷 전문인력의 공급 및 운용기준을 제시하며 셋째, 인터넷 전문인력 활용기반을 조성해 최종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산·학·연·언론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터넷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인터넷기술교육과 인터넷기술자격인증,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터넷전문인력 활용기반 조성의 완결형 순화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인터넷전문인력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 한다.

인터넷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메카니즘으로서의 인터넷아카데미는 인터넷기술교육과 기술자격인증 및 인력활용기반을 조성



〈인터넷전문인력〉

구분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북	전주 전북	강원 제주	계 (비율)
10대	2,071	703	438	188	508	198	211	4,317 (13%)
20대	11,789	3,717	2,713	1,432	1,996	1,228	824	23,699 (73%)
30~ 40대	2,468	613	349	239	305	174	98	4,246 (13%)
50대 이상	61	13	11	4	4	1	1	95 (1%)
계 (비율)	16,389 (50%)	5,046 (15%)	3,511 (11%)	1,863 (6%)	2,813 (9%)	1,601 (5%)	1,134 (4%)	32,357 (100%)

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운영에서 인터넷기술교육은 각종 인터넷정보검색 교재의 개발, CATV 및 인터넷기반 원격교육과 전국 순회 교육, 50개 인터넷기술교육기관 지정 운영, 인터넷기술자격인증시험 합격자 보수교육을 시행한다. 인터넷기술자격의 인증은 인터넷활용 능력에 대한 검증을 통해 전문인력의 사회적 유통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기술자격인증위원회는 인터넷정보검색사(일반, 고급), 인터넷정보설계사, 인터넷시스템관리사등의 인터넷자격시험을 관리하여 전문인력에 대한 인증을 한다. 이와같이 인터넷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기술인증을 거친 전문인력은 자체적으로 DB화되어 수요가 필요한 각 산업계 및 관련 단체와 기관으로 온라인 연결되어 활용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기술교육은 인터넷인력보급을 위한 기초단계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환경의 빠른 변화에 맞춘 유연한 교육내용의 공급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처럼 인터넷 교육의 중요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것이 인터넷기반 원격교육이다.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며 쌍방향적이고 열린 교육을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 교육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재의 개발과 강의, 평가 등 거의 모든 교육과정에 강의 진행자와

교육수혜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교육의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교육자료와 학생개인정보등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관리되어 손쉽게 DB화 할 수 있는 장점은 일정한 교육을 거친 인터넷 전문인력을 산업계 및 관련기관과 온라인 상으로 자동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 기반 원격 교육은 인터넷기술교육과 인증 및 전문인력활용이라는 체계를 구현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될 인터넷자격증 국가공인화가 현실화 되면 잠재적 교육 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각종 사이버 교육기관이나 인터넷교육기관들과도 쉽게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으로 네트워크화된 시스템 구성요소들간의 원활한 상호유통으로 인터넷교육 전반에 대한 교육내용의 체계화, 전문인력의 필요성 증대 등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게 되어 인터넷기술인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격종목 및 시험방법〉

종 목	1차시험	2차시험
인 터 넷 정보검색사	온라인(제한없음)	필기(9개 대도시)
	필기(9개 대도시)	실기(9개 대도시)
인 터 넷 전 문 가	전문검색사	필기(9개 대도시)
	정보설계사	필기(9개 대도시)
	시스템관리사	필기(9개 대도시)
		실기(9개 대도시)

〈199년도 시험시행계〉

종 목	상반기	하반기	비 고
인터넷 정 보검색사	4~6월	9~11월	년2회
	2~4월	9~11월	년2회
인터넷 전문가	4~6월	9~11월	년2회



(인터넷기술자격인증위원회)